

도모가우라 도로 야마부키성 입구

이와미 은광과 도모가우라항을 잇는 이 7.5km 길의 시작점은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약간 떨어진 언덕 중턱의 풀이 우거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6 세기 후반에 이 장소는 은광 전체의 중심지였습니다. 산나이 마을로 알려진 이 지역의 중심부에는 은광을 감독하는 관리의 거점이었던 관리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광부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주거지와 상점, 그리고 묘지가 있는 여러 사찰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맨 처음 이와미 은광을 지배했던 오우치 씨족은 도모가우라 도로를 개통하면서 마을 바로 바깥쪽에 있는 산 정상에 야마부키성을 지었습니다. 이 언덕 위에 지어진 요새는 지방의 군벌들이 끊임없이 적대와 동맹 관계를 반복했던 전국 시대에 은광과 은 광석의 수송로를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우치 씨족은 1562 년 적이었던 모리 씨족에게 야마부키성과 은광 자체의 지배권을 빼앗기고 말았지만, 야마부키성과 산나이 마을은 그후로도 40 년간 은 채굴 공동체의 중심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600 년 이와미 은광이 도쿠가와 씨족의 손에 넘어가고 그들의 기치 아래 일본 전체가 통일되면서 1867 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되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산나이를 버리고 그 대신 산기슭에 위치한 오모리 지구를 은광 관리의 중심지로 선택했습니다. 그후 오모리 마을은 이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은은 바다가 아닌 육지를 통해 오노미치까지 운반된 후, 거기에서 다시 오사카나 에도(현재의 도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연으로 완전히 뒤덮인 야마부키성에 오르면, 일본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일 정도로 넓게 트여 있고 부분적으로 산성의 기초인 석축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된 도모가우라 도로는 400 여년 전 험한 숲길을 따라 무거운 광석을 옮겼던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을 가늠케 합니다.